

무명종자 습기 제거 위해서는 꾸준히 닦아야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⑤

견성체험

깨달음, 견성(見性)이란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보조국사는 성품을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空寂靈知]로 정의한다. 상당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성품을 반드시 초월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이나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특정한 행동양식도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심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법이 있다.

범부가 시작도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율회의 길에서 태어나 오고 죽어 가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고 잘못된 생각에 넘어지는 무명(無明) 종자의 습기를 오랫동안 성품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자기의 성품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다. 팔을 심으면 팔이 생겨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팔은 팔의 성품이 있고, 콩은 콩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성품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무명종자의 습기[無明種習]를 자기 성품으로 삼아왔다는 구절이 보인다. 무명이란 깨어있음의 결여를 말한다. 알아차림이 없고, 지혜가 없는 집착된 상태이다. 종자란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8식 알라야식의 종자를 말한다. 종자는 과거의 반복된 행위의 결과로서 앞으로도 역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잠재적인 기운, 습기(習氣)를 말한다.

종자는 크게 분류해 업(業)종자와 불(佛)종자로 나눈다. 업종자는 무명의 습기에 기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의 율회에 빠져들게 한다. 이것은 본래의 성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자기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삼아왔다. 반대로 부처의 종자는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고, 궁극의 깨달음으로 이끌고, 해탈의 세계로 이끈다.

우리가 견성이라고 했을 때, 이때 본다고 하는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업종자인가? 아니면 부처의 종자인가? 일단 이들 양자를 모두 말한다. 업종자를 보면 부처의 종자를 함께 본다. 그러나 이점은 매우 미묘한 차이점이 있고, 또한 여기에 결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먼저 업종자를 보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고통과 원인을 본다. 고통과 그 원인을 보면 고통의 소멸을 경험하면서 부처의 종자가 드러난다.

일반상담의 경우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행동패턴을 먼저 보게 하고,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선명하게 통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고통의 소멸이 그대로 영적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반상담은 영적·초월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적응을 강조한다. 반면에 영성에 기반한 명상상담은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면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만 영성체험이나 깨달음은 일종의 지식이 되거나, 사회적인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회광반조

무명의 업종자와 부처의 종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기준점은 회광반조(廻光返照)에 있다. 아래의 문답은 좋은 사례이다.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듣습니다.”

“그대는 듣는 바로 그 성품[汝聞性]을 돌이켜 들어 보아라[返聞]. 거기에도 또한 다른 많은 소리가 있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이 모두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관하여[觀音]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 모두가 없다고 하던데, 이미 없다면 허공이 아닌가?”

“원래 공(空)하지 않고,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무엇이 공하지 않은 바탕인가?”

“모습(相)이 없으니, 말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의 목숨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여기의 반조(返照)를 통해서 내담자는 지금까지의 회피와 저항을 벗고 진정으로 자기 내면에서 경험적인 수준으로 영성을 체험한다. 이것은 신령한 본성을 체험하는 네 번째 깨달음의 단계이다. 일체의 분별이 없고 고요하니, 공적(空寂)이 아닌가? 또한 텅 빈 가운데 밝고 밝으니 신령한 알의 영지(靈知)가 아닌가? 그러나 다시 의심하지 말라.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결과이다. 물론 마조와 무염의 문답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내담자가 영성을 극

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는 상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은 '듣는 바를 돌이켜서 들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반조이다. 새소리의 분별은 의식이 밖으로 향한다. '저것은 까마귀소리이다' 이것은 일상의 적응적 수준이기도 하고, 충분히 깨어있는 신령한 알이기도 하다.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저것은 까마귀 소리이다'라는 분별은 업종자에 의한 언어적인 판단이다. 이것은 일차적인 대상 분별이다. 이 판단은 옳은가? 그른가? 일상에서 이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을 반복하여 검증하고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이점은 매우 적응적이고 일상적이면서 세속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대는 듣는 바로 그 성품[汝聞性]을 돌이켜 들어 보아라[返聞]'고 한 점이다. 이것은 언어적인 분별과는 다른 영역이다. 귀의 성품은 듣는 일이다.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귀의 성품은 듣는

분별은 업종자에 의한 언어판단 돈오해도 불성 드러나지 않아 사후점검으로 점수 필요 자기통찰의 지혜 공부가 관건

이다. 이때 '그것은 까마귀소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내용이다. 성품 자체를 돌이켜서 보는 견성(見性)의 행위는 아니다. 새소리를 듣는 것을 듣는 것은,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으로서 신령한 알을 깨닫는 견성체험이다. 이곳에는 어떤 분별도 없고, 깨어있는 의식만이 존재한다. 이 깨어있는 의식을 불성이라 부르고, 본래면목이라 부르고, 영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부처의 종자이다. 이것은 물들지 않는 본래면목이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서로 방해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성, 영성, 불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상의 중생에게 적고 성인에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평등한 지혜로서 질문하고 듣는 그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 알고 모른다 하는, 이 마음이 부처이다. 이것을 떠나서 별도로 부처가 없다.

사후점검
제5단계는 점수로서 사후점검의 영역이



다. 견성체험으로 돈오를 했다지만 오랜 세월 무명업의 종자로 살았기에 부처와 다르지 않지만 여전히 번뇌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온전하게 부처의 종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돈오 이후에도 여전히 점수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범부가 시작도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율회의 길에서 태어나 오고 죽어 가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고 잘못된 생각에 넘어지는 무명(無明) 종자의 습기를 오랫동안 성품으로 삼아왔다. 비록 오늘에 와서 자성을 돈오하여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부처와 닮아 있는 줄을 알지만, 단박에 제거하기 어려워져, 순(順)경계와 역(逆)경계를 만나서 성을 내고 기뻐하고 울다 하고 그르다고 번뇌가 치열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은 돈오점수를 주장한 이유이다. 돈오했지만 업종자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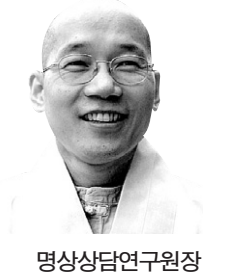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더욱 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부처의 종자를 가진 깨달음 이곳에서는 분명하게 곧 마음의 평화[定]와 내적인 통찰[慧]이 본래로 갖추어져 있다. 정혜는 영적인 지표인 공적(空寂)과 영지(靈知)와 동의어이다. 단지 경험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공적과 영지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영성을 체험하는 수행과정을 말할 때는 정혜란 용어를 더 잘 사용한다.

여기서 보조국사는 정혜를 자성정혜(自性定慧)와 수상정혜(隨相定慧)를 구별한다. 자성정혜는 새롭게 개발되는 측면보다는 본래 내재된 인간의 보편적 자질로서 자성에 갖추어진 특질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상의 삶에서 대상에 작용을 할 때는 수상정혜란 용어를 사용한다. 곧 대상을 따르지만 본래의 정혜를 잃지 않는다.

일반상담에서 보면, 사후점검이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통찰해 큰 번뇌는 사라졌지만, 일상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고통과 번뇌가 생겨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스승과 함께 내적인 자기 통찰에 의지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먼저 <수심결>에서 보여주는 명상상담은 간화선의 화두에 의해서 촉발된 회광반조에 의해서 불성을 자각하고 깨닫는 과정이다. 둘째로 이 과정은 '문제제기 → 회피 → 회광반조 → 깨달음 → 사후점검'이란 5단계로 이뤄졌다. 셋째로, 이상담과정을 일반화시켜서 '영성에 기초한 명상상담의 모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것은 명상과 간화선에 의한 명상상담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사례이다.



명상상담연구원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방(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계송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한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초급, 중급, 고급 수련과정을 통해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 자 격 : 스님 및 식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개강일 : 응화북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사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 과 목 :
 - ◆바라작법 = 천수, 사다라니, 관음화의재, 요잡, 춤부다라니(예수제전전안시 바라작법)
 - ◆착복무작법 = 도량계, 향화계, 다계, 읊남, 귀경이, 운심계, 오공양, 범고무
 -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통소다루기 (착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의향 있으면 학인에게만 전수
 - ◆법당복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재, 해상용왕재, 시다림 등
 - ◆대제의식반 : 영산대제, 생전예수대제, 무차수륙대제, 국가적위령대제 등
 -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 사리이운, 고승사리이운, 대종사리이운, 설주이운 등
 -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행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식의 등
 - ◆핵심경전 강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계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강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흥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